

國際作家大會의 敎訓

文化實踐에 있어서의 善意志(二)

朴致祐

文化擁護 國際作家大會의 開催及 그 決議로부터 生起될 一切의 運動을 나
는 우에서 一種의 政治的인 運動이라고 規定했다. 理由는 至極히 簡單하다.
卽反과쇼 運動이기 때문이다.

開會 勞頭에 벌서 主宰者 格인 「앙드레지드」는 「文化的敵은과시하야 結
成된 본□設「뷰-로」는 文化的 領域에 있어서, 廣範한 意味의 「과시즘」-
文化的 發展을 □威하는 一切의 危險을 向하야 抗爭하기로 함.

이것을 보아서 疑心없이 이 運動은 一種의 反과쇼 運動임을 알 수 있다. 그
러타면 오늘과 같은 情勢下에서 「과시즘」의 問題以上으로 政治的인 問題가
잇는가? 「과시즘」과 抗爭한다는 이것以上으로 切切且顯顯한 政治的 行動이
잇는가? 反과쇼의 抗爭을 決議한 會습인 以上 그것이 勞動者의 會습이라고
政治的이고 作家의 會습이라고 非政治的이라는 法은 없을 것이다. 大會가
「HG웰스」의 「펜.크러브」와 區別되는 가장 本質的인 理由도 여기있다.

만약會습에서 上記한 政治性만 除去한다면 大會는 「웰스」流의 國際的인
作家親睦會 文學座談會 文人社交團體와 무엇이 다를 것이라! 大會는 뜻밖예
도 이러케 文學과 政治, 作家와 政治와의 關係에 對한 善 敎訓을 提供하고
잇는 것이다. 大會가 特別히 蘇聯의 大會가 아니 었드니 만침 우리에게 주는
바 教育的 效果가 豫想以上으로 큼이 있다. 이 땅의 藝術 至上 主義者와 轉
向作家의 一群은 文學이라는 것은 政治를 떠남으로써만 「이데오로지-」를
拋棄함으로써만 비로소 文學일수있다고 떠들고 있다. 그들은 作家가 政治的
關心을 가진다는 것은-作品에 「이데오로지-」를 插入한다는 것은-文學의 買
□일뿐만 아니라 참아作家의 良心, 藝術家의 良心이 許하지안는다고한다. 나
는 文學에 關해서는 完全한 門外漢이니만치 무엇이 作家의 良心이며 무엇이
藝術家의 良心인지는모른다. 그러나 文學 擁護 國際 作家大會에 參席한 各國
의 作家들은 作家의 良心 藝術家의 良心을 살리기 爲하야 일부러 이러한 政

治的인 會合에 參席하였다고 한다.

그들은 反과쇼의 抗爭이라는 이 果敢한 政治的인 運動에 몸을 던짐만이 自身の 作家的 良心 藝術家的 良心을 살리는 所謂임을 宣言하고있다. 正義와 眞理의便을 들려는 마음, 빠뚜러진 現實이면 빠뚜러진 그대로 宣明하며 摘發하는마음, 不義와惡이라면 미워하며 치려는 마음, 이러한 마음 以上으로 健全한 藝術家的 良心이 잇음을 나는 아지 못한다.

바른 것을 바른대로 그려내는 것을 주저하는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만약 藝術家的 良心이라고 固執하는 사람이 잇다면 나는 藝術 그 自體의 名譽를 爲하야서 「良心」의 拋棄를 要求한다. 作家가 正義를 眞理를 眞實을 思慕할 때 以上으로 그의 藝術家的 良心이健全한때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自身の 이러한 藝術家的 良心에 忠實할때 以上으로 作家로서의 嚴肅한 政治的인 選擇에 直面하는때는 없다는 것을 大會는 몸으로써 보여주고 있다. 會合에 列席한 作家들은 正히 이러한 良心의 途程을 밟았던 것이다. 政黨에 籍을 두라는 말은 아니다. 政策의 奴隸가 되라는 말도 아니다. 現實에 忠實할 때, 以上으로-各自的 藝術家的 良心에 忠實할때 以上으로-緊密한 作家와 政治와의 交通은 잇을 수 없다는 말이다. 이러케까지 말해도 아직도 固執하는 者가 잇다면, 그는 確實히 反과쇼 運動을 政治運動으로 보지 못하는 者일 것이다. 不幸히 이 사람은 政治를 政黨活動 政策活動으로밖에는 理解못하는 者이거나, 그러치 안흐면 政治라는 것을 마치 村長이나 知事나 道評議員이나 大臣만이 하는 그 至極히 稀貴한 物件으로 밖에는 생각지 못하는 者일터이니 足히더부러 論할 者못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령 「지-드」가 藝術의 政治에의 翳屬을 警戒하며 「방다」가 「正義行動」과 「政治行動」은 區別할것을 力說하고 잇다고 해서 근심할 必要는 조금도 없다. 虐待받는 者의 利益을 爲하야 正義行動에 加擔하는것 以上の 政治行動은 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오늘과 같은 情勢에서는……. 「지-드」나 「방다」는 다만 文學行爲의 政黨에의 歸屬, 政策活動에의 奴隸化를 警戒하고 잇을 따름이다. 現代와 같이 不斷히 政治的인 「이거냐? 저거냐?」가 强要되는 時期 따라서 沈黙조차 默視못할 하나의 社會的인 罪惡으로 看做되는 時期에 잇어 어찌 文學만이 政治와 絶緣일수 잇으랴! 그럼에도 不拘하고 如前히 政治와의 分離— 「이데오로기-」의 拋棄를 부르짖고 잇다면, 우리는 그 心事를 疑心할 따름이다.

大體作家는 이러케 主張함에 依하야 누구의 利益에 奉仕하고잇는가를 생각하는가? 달을 읊던 꽃을 노래하던 文學의 길은 如前히 政治와 通하고잇는 것이다. 藝術家的 良心云云하고 떠들기만 하기 前에 作家는于先 빠뚜러진 現

實을 뼈뚜러진 것으로서 勇敢히 忠實히

그러내고 잇는 것을 스스로 물어볼 것이다. 그러치 못하다면 遺憾이지만 우리는 벌써 그 所謂「良心」이란 者를 尊敬할수 없다. 무딘 良心은 良心이 아니기 때문이다. 썩어진 良心은 이미 良心은 아니기 때문이다. 作家大會는 作家의 良心이란 어떤 것인가를 보여 주고 잇다. 作家의 「모랄」의 問題이다. (未完)